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세상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12월 17일 (토) 제 1902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가장 큰 성탄 선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하나의 가장 작은 숫자이다. 한 사람이 무엇 그리 대단하겠는가. 그러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곤 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 루터 한 사람이 흑암의 중세 시대에 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 자신도 세상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와 이름이 비슷했던 마틴 루터 킹도 세상이 어두울 때 'I have a dream'이라는 짧은 그러나 절절한 비전을 선포하였다. 그 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바꾸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다는 한 사람 조지 무러는 또 어떤가. 가성비(價性比) 최대의 삶을 살았던 그는 항상 입을 넓게 열고 구하였다. 그로 인해 먹고 입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고아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겼고 세상은 크게 변화되었다.

어두운 들녘에 무시받던 한 아이가 있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6:9) 한 아이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나누었다. 그 한 아이는 오래지 않아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그 출발이 한 어린 소녀였다. 어린 사무엘은 기성세대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유일하게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할지라도 깨어 있는 한 사람, 깨어 있는 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다.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아이의 귀중함을 완전히 일깨워 주신 분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1부 12번째 곡이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가 반복되는 이 찬양은 이사야의 예언을 옮겨 부른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우리를 위해 그 어깨에 통치권을 가지고 태어난 한 아기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꾸셨다. 한 아기 예수님이 바꾸신 세상 가운데 철부지 아이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내가 있다.

꽃도 누군가 이름을 불러 주어야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고 김춘수 시인이 일러 주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서 수치스럽다며 자신을 쫓겨 감추고 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삭개오

야' 이 눈물겹도록 따뜻한 예수님의 부름 앞에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려 오신 한 아기 예수님은 무엇보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바꾸어 주신다. 나의 존재를 흔들며 깨워주신다.

'탄일종이 팽팽팽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팽팽팽 멀리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들어보시라. 성탄의 종이가 울린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이다. 그 종소리가 저 깊은 산골에도 저 먼 바닷가에도 울려 퍼지고 있지만 내 내면에도 분명히 들려야 한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성탄의 종소리에 속히 일어나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어떤 성탄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일까. 나 하나의 소중함을 깨달은 나 자신이 가장 큰 선물 아닐까. 그런 내가,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기에.

성탄특시

성탄, 하늘문을 여시네

-최명희

고요한 밤, 샛별 하나 반짝이네
천사들의 찬양소리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원의 빛 비추셨네



최명희 시인

여물통에 누이신 아기,
평화의 왕으로 오셨네
그 작은 눈망울에 하늘영광 담으셨네

성육의 광파레 하늘보좌 움직여
다윗의 계보에 "자기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탄생과 피흘림이 한 곳에서 만나 죄의 형틀 파쇄되니
의의 빛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문을 여시네

찬송하라 그의 이름!
경배하라 그의 사랑!
언약의 증거되신 아기예수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최명희 시인

이화여대 졸업, 1978년 도미 이후 개인콘서트 등 교회음악활동, 예피포드문헌상 시부문 수상등단, 시전(시와 찬미의 전당) 동인, 연합시집 '아가무' 상재



시론
최해근 목사



성탄절 특별 설교
류승렬 목사



인터뷰
오세훈 목사, 김선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장대상, 성가대·목사카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미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축 CCNE 인가 획득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박사과정 | 목회학(DMin), 음악학(DMA), 상담코칭과 영성형성(DMin), 영성과 상담코칭(PhD)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하얀 머리에 마른 팔로 아기를 안고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평온히 잠드는 아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아기는 예수입니다. 시므온은 하늘을 향해 찬송합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29절). ‘이제 놓아 주시는데다’는 말은 라틴어로 Nunc Dimittis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신앙인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주여 이제 종을 놓아 주시는데다, Domine, Nunc Dimittis’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시므온이 완수한 사명이 무엇이었기에 이제 죽어도 좋다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시므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셨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인생은 한 마디로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

다. 리던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때 나온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29절). 주여, 이제 종을 놓아 주시는데다, Domine, Nunc Dimittis!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일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명의 마지막 종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올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 50%였습니다. 8%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에 밀려서 본질이 사라지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잘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즐거운 성탄캐롤을 부르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날에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 열방의 빛 되신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유대 성전에 머물렀지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뿐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흑암의 땅에 하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세인트 토마스였습니다. 이 섬은 당시에는 덴마크가 점령한 식민지였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노예들을 끌고가서 사탕수를 재배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목사가 된 진젠돌프 백작은 그곳에 흑인 노예들에게 전도할 지원자를 보냈습니다. 26명의 사람이 지원했고, 두 사람을 먼저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데이빗 니츠만과 레오나드 도버였습니다. 노예들이 있는 곳에 자유인의 입국이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덴마크 여왕에게 자신들이 노예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예의 신분

옆에는 모라비안의 정신을 담은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침 교회 옆 기도실에는 금요일 오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분의 흑인 성도가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들과 함께 감격적인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주님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들의 다음 대담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삽니다. 그들이 간직한 복음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그 십자가 복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무엇을 위해 삶을 바쳐야 할 것인지 방향이 보입니다. 생명을 바친다 해도 조금도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런 특권이 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일생을 기다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므온이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자를 보았습니까? 사망의 어두움에 빠져 심판과 죽음으로 끌려 갔을 이방인 되었던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시므온이 보았던 예수님, 그 옛날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만났던 그 동일한 그 예수님을 보셨다면 우리는 외쳐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그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Domine, Nunc Dimittis!

성탄절 특별 설교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NUNC DIMITTIS

누가복음 2:22-33



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1-32절). 이 한 마디를 위해 시므온은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그의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예수님, 그가 외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시므온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40일이 된 아기를 안고 외친 고백은 구원자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구원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33%, 산타클로스 선물 22%, 크리스마스 파티 21%. 네번째 17%를 차지한 것이 예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관해 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18%,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

일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아브라함도 다윗도 멀리서 보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 목자들이 전한 바로 그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그 이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이때 우리도 동일하게 시므온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주재여, 이제는 종을 놓아 주시는데다. 이제 제 사명을 마쳤습니다. Domine, Nunc Dimittis!

둘째, 세상의 빛 예수님입니다. 시므온이 두번째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2절).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해 오신 구세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와 가족에 고정된 시선에서 이웃과 세계 열방으로 관심이 확장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고통의 땅 아프리카와 영적으로 죽어가는 유럽의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일어납니다.

아내와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던 때에 중남미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과 세인트 존이라는 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준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흔적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평범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진젠돌프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727년 8월 13일 부흥회 때 성령이 임했고 온 교인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관심에서 세상을 향한 관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으로 세인트 토마스에 크리스마스 두 주 전 1732년 12월 13일 도착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백인 영주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노예들과 함께 일을 하고 밤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 주 동안 그 모라비안 교회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섬 곳곳을 뒤지다가 돌아오기 전날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다는 곳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감격적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뉴헤른후트 모라비안 교회 (New Herrnhut Moravian Church). 1732년에 두 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독일에서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하나님의 지킴이’라는 헤른후트(Herrnhut)였고 이곳은 뉴헤른후트(New Herrnhut) 교회였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의 흑인 여성도가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300년 가까이 지나도록 조금도 변함없이 서 있는 예배당 강대상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14)

2022년 성탄절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롬의 평화가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며, 축하하는 모든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12월

대표회장 : 장석민 목사

수석공동회장 : 나성균 목사

사무총장 : 이제선 목사

공동회장
황동익 목사 (뉴욕) | 김용현 목사 (남부) | 김동욱 목사 (중부)
진유철 목사 (서부) | 정치현 목사 (남미) | 임현수 목사 (캐나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 WWW.IKCCA.ORG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아 각 가정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펜데믹 시기에 이발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근처에 있는 이발소로 머리를 깎으러 갔었다. 그

런데 머리를 깎고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슈퍼마켓 쪽에서 아주 작게 성탄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15명 되는 백인 미국 교회 성도들이 서서 우리

귀에 익숙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갔고 한 백인 여자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전도지 한 장을 주어서 받았다. 그 종이에 용서에 대한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 있었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란 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요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렇게 순수한 찬송을 부르며 전도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백인들이 그렇게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전도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잘 부르는 노래 솜씨는 아니었다. 악보를 가져와서 머리를 숙이고 열심히 보면서 불렀고 소리가 작았다.

악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듯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돈을 모으기 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멋지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었고 큰 소리도 아닌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

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믿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것이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능력이 필요 없고 단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소리라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할 때 믿는 자는 다 믿게 될 것이다.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어색하고 창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행동은 창피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구원받을 자는 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때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게나마 찬양하고 예수님이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 모습을 통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나의 친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6)
david2lord@hotmail.com

연방법으로 동성결혼을 “존중(?)” 한다!

미 언론, ‘결혼존중법안’ 통과 과정과 향후 미칠 파장 보도

미 연방 하원이 지난 8일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에 공화당 의원 39명이 지지를 더하면서 258대 169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동 법안은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12명이 힘을 보태면서 지난

달 29일에 통과됐다. 그리고 이날(8일) 하원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되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제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연방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와 가치가 심각한 손상과 함께 향후 가족제도의 향방까지도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지지하며, 신속하게 서명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상, 하 의원 모두 법안을 처리해준 데 감사를 전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동 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온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할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바로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할 기준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은 3명이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기준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합법성을 인정한 대법관의 판례가 폐기되더라도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결국 의회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연방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의회 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

았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했다. 앞서 상원에서 법안 토론 당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주 정부들이 동성결혼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심각한 위험도 없다”며 “결혼존중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사실 앞서 지난 8월에 하원을 이미 통과했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한 60표 이상의 표가 필요한데 상원의 민주당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상원에서는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종교적 이유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지난 달 상원에 이어 8일 하원에서도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하원의 표결 결과를 보면 법안 원안보다 수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은 더 적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의회는 동성결혼을 다루기 위험한 영역으로 봤지만, 이제는 동성결혼이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의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봐도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1996년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었을 때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5월에는 지지 응답률이 71%에 달했다.

한편 결혼 존중법이 통과될 경우 종교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라무센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천명 중 과반수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야후 뉴스는 결혼존중법과 관련해 좌파와 우파 사이에 동성애 권리와 종교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12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종교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킨 수정안이 제시되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소셜미디어에 많은 지지자를 가진 좌파 인사들은 법안에 일부 불만이 있지만 대체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법안을 지지한다.

결혼보호법을 비판하는 계층에서는 결혼존중법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우파에서는 이 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종교적 자유 조항을 지지하고 그들의 신앙 가르침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종교 단체들이 있다.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목회 경영 리더십 대학원

2023년 봄 학기 - 개강 2023년 2월 6일

모집과정

MBA -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Doctor of Leadership : Ministry/ Mission Leadership
Ph.D. in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636) 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213) 481-2779
www.srcla.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한길교회
담임목사: 이병준

20 Arthur St. Ridgefield Park, NJ
Tel.(201)615-14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he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